

“전북대 4.4시위 역사적 재조명을”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눈길’ ... “4.19 혁명 도화선” 한목청

올해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 전북대학교에서 4.4시위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날 27일 중을 통한 비대면 동영상 제작에 이어 29일 유튜브로 공개됐다.

이 학술대회는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와 정치외교학과, 학생 학술동아리인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지방정치학회 전북대 총동창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그간 역사적으로 저평가 돼 있는 4.4 시위에 대한 기록을 발굴하고 재조명함으로써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학생들과 신진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중을 통한 비대면 동영상 제작해 유튜브 송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기현 교수가 ‘전북 정신과 4.4 시위’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것을 비롯해 세부 발제로 각 지역의 민주운동과 지역사회를 조명하는 세부 발제가 이어졌다.

특히 전북대 우승민 학생은 ‘4.19 혁명과 4.4 시위의 역사성’을 주제로 학생 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 발제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신기현 교수는 “60주년이 된 4.19 혁명 직전 전북대에서 발생한 4월 4일의 대학생 시위는 당시 대학 중 최초로

발생한 것임에도 그 역사성이나 정체성은 충분히 발굴되지 못해왔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4.19 혁명이 효시인 4.4 시위를 재조명 하고, 전북도의 현대사 속 민주화 정체성 함양에도 기여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규 총동창회장은 “1960년 당시 독재정권에 맞서 대학가에서는 최초로 대학생 시위를 주도한 곳이 전북대”라며 “자랑스런 선배 동문들의 활

동이 제대로 조명될 수 있도록 전북대 동창회가 나서 기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960년 전북대학교에서 벌어진 4.4 시위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최초의 대학생 시위로 알려져 있다.

/장은성 기자



올해 4.19 혁명 60주년을 맞아 전북대학교에서 4.4시위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교원 전문성 강화

전북교육청 ‘A-STeP’ 연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대비해 교원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원(교사, 수석교사, 교감)중 희망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전주 비전대 행복기숙사와 리마다호텔 세코미아홀에서 고교학점제 ‘A-STeP’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회기별 참여인원을 20명 이하로 제한해 5회 추진한다.

고교학점제 ‘A-STeP’ 연수는 2022년부터 일반고에 일부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도(Academic Advising)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To

Support Teacher’s Professionalism)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카테미 어드바이저의 역할 이해/ 자카이해결사 ▲진로탐색 검사 도구의 해석과 활용 ▲진로정책감/성숙도 활용 ▲직업카드/학과카드 활용 방안 ▲진로별 학업 계획 설계 지도 ▲진로학업 관련 학부모 상담의 실제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교단위로 진행됐던 고교학점제 ‘A-STeP’ 연수를 지원받지 않은 교사와 소규모 학교 1학년 담임 그룹 참여를 권장했으며, 교사의 학생 학업설계지도 전문성을 모든 교사가 갖출 수 있도록 연구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른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일반고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 교원의 진로학업설계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 중심을 둔 맞춤형 지도 시스템 구축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리빙랩 교수법 세미나

전주대학교 총장 이호인은 수요자가 직접 생활할 속에서 실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 방법론인 리빙랩(Living Lab) 교수법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학기 세미나의 연장선으로 전주대에서 진행되는 리빙랩 사례를 통해 이를 보완·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고 리빙랩 교수자의 전문성 및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여러 학과의 특성을 융합해 지역 수요자 친화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개의 ‘지역전략 특성화사업단’이 맡았다. 먼저 ‘지역 경

영·금융 혁신인재 양성사업단(경영학과·물류무역학과·회계세무학과·창업경영금융학과) 김진성 단장이 서

학동 예술미를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기업 회계 세무 문제 해결 지역화폐를 활용한 대출은행 설립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어 스마트시티인재양성사업단 정홍진 단장이 트윈캠퍼스 리빙랩 사례를 발표했다. 공간정보로 구축된 디지털 트윈 캠퍼스를 통해 교내에 산재된 문제들을 IoT, 빅데이터 등 기술을 투입해 해결하고 이를 도시에도 적용하는 스마트시티 문제해결 플랫폼을 소개했다.

Wellness EduNet 사업단에서는 심준영 교수가 다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현장 중심 문제 해결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 세미나에는 한국 리빙랩을 이끌어 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위진 선임연구위원과 성지은 연구위원, 공동체 기반 사회혁신 플랫폼을 개발하는 엔유비즈 이보현 대표도 초청돼 대학 중심의 리빙랩 발전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두고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도내 직업계고 교육과정 ‘한눈에’

전북교육청, 직업계고 기능인재 한마당... 3~4일

전북지역 직업계고등학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 직업계고 기능인재 한마당을 11월 3~4일 이틀 간 분청 앞마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업계고 기능인재 한마당은 직업계고교의 학교교육과정 및 특색 사업을 홍보하고,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다. 주요 행사로는 ▲교육과정 소개 및 교육활동 체험부스 운영 ▲직업계고 전공별 진로상담 ▲학교기업·창업동아리 활동 결과 전시 및 제품 판매 ▲재능마당 등이 있다.

우선 직업계고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홍보·전시하는 교육활동 체험부스 운영에는 29개교가 참여한다. 미래자동차, 창작 로봇, 가죽공예, 네일아트 및 메이킹업, 모형항공기 만들기, 드론 축구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농업·공업·상업계열 등 계열별

진학상담도 가능하다. 학교별 담당 교사가 직접 참여해 입학상담 및 진로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계열 및 학교 선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재능마당에서는 관악, 난타, 사물놀이, 합창, 댄스 등 직업계고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하는 예술 공연이 이틀간 계속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체험시간을 1일 3회(1회 10:00~12:00, 2회 13:00~14:30, 3회 14:30~16:00)로 운영하며, 회당 참여인원도 150명으로 제한한다.

또 행사장 입장 전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격리 공간 운영을 통해 비상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능인재 한마당은 도내 직업계고의 우수성을 알리고,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라면서 “교육과정 안내 및 전공별 직업체험을 통해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LINC+사업단·고창군, 식초문화대전 개최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은 고창군과 공동으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고창군 문화의 전당에서 고창 식초문화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기관은 1, 2회 고창 브랜드 지식농업페스티벌부터 지속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생명과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지속하며 과학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경제 한의원의 특강을 비롯해 ‘식초의 맛’이라는 주제로 초맛의 원류를 찾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컨퍼런스가 열린다. 식초뿐만 아니라 와인, 우리 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내내 식초문화 전시회도 열린다. 식초초막 사진과 300여점의 관내·외 식초 부부마에서 사용하던 전통 식초항아리 초두루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초항아리 등이 전시돼 식초에 대한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식초 제품개발과 기술 이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국립농업과학원, 전북대 링크플러스사업단의 다양한 사업 성과 홍보관도 함께 운영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 ‘최우수’ 선정

전주교육대학교(김우영 총장)가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공공기록관리 평가는 국가기록원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목적 하에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이 평가대상이다. 총 468개 공공기관이 2019년에 추진한 기록관리 업무기반(시설·장비, 전

담전문인력), 업무추진(기록물 아관, 평가제기, 정수점검 등), 서비스 및 업무개선(정보서비스 제공, 조직문화 개선 등) 등의 분야를 점검받았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마 등급(최하위)을 차지한 기관이 많아 기록관리 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이슈화 되고 있어 전주교육대학교의 이번 최우수 대학 선정은 더욱 의미가 크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